

치 사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이곳 강소성 무석 영산에서 제13차 한중일불교우호 교류대회가 개최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대회준비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중국불교협회 전인 회장스님과 중국 종교사무국장 왕작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중일 불교계의 우호 교류와 증진에 기여하신 고 조박초

**선생의 탄생 100주년의 해에 개최된
점에서 더욱 뜻 깊다 하겠습니다.**

**고인의 불교에 대한 신심과 원력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며, 한중일 3국의
불교도들은 고인의 뜻을 깊이 새기고
불교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영산 범궁은 지난해 제2차 세계불교
포럼이 열렸던 곳으로, 중국불교의
도약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 생각하며
많은 세계의 불교인들이 불심으로**

**화합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중일불교대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류평화와 안녕을
발원하며, 실천적 보살행을 주창해
왔습니다. 또한, 3국의 불자들은 매년
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증진해
오면서, 동시에 국제학술강연회를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 3국 불교의 우호와

**교류증진에 큰 가교의 역할을 해온
본 대회를 통해 3국의 불교계가 더욱
발전하고 사회평화와 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끝으로, 내년 14차 한국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실 것을
약속하면서 일중한불교협회 쓰보이
슁에이 회장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4년 10월 1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